

냉면·김치찌개까지 인상...월급 빼고 다 올랐다

외식비가 줄줄이 인상에 직장인들 점심값 걱정

삼계탕 전국 시도 중 광주가 가장 비싸...짜장면도 최고

광주 상무지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A(40)씨의 점심 단골은 100m 거리에 있는 우체국보험광주회관 구내식당이다. 이 식당은 지난 1월 한 기 식사비를 500원 올린 5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는 "상무지구에는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면 거의 1만원이 들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저렴한 값에 빨리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 샌드위치·도시락집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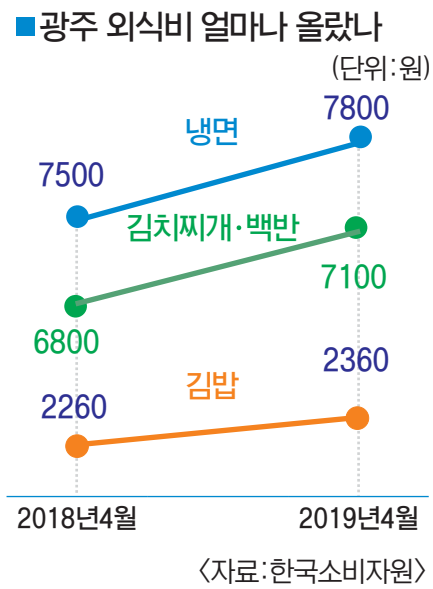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는 등 주요 외식물가가 들쭉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4월 광주지역 6종의 주요 음식별 평균 외식비는 지난해보다 200~300원 올랐다. '여름철 별미' 냉면은 지

난해보다 300원 오른 7800원을 기록했고 ▲비빔밥 7500→7800원 ▲김치찌개·백반 6800→7100원 ▲삼겹살(200g) 1만1689→1만1911원도 각각 올랐다. 김밥 한 줄마저도 2260원에서 2360원으로 올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외식물가 인상을 실감케 했다.

다음 달 12일 초복을 맞아 직장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삼계탕 가격은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삼계탕 한 그릇은 1만4400원으로 서울(1만4385원), 경남(1만4100원), 부산(1만3714원) 보다 가격이 높았다. 광주에 4개 지점을 낸 고려조삼계탕은 2년 전 가격을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 광주지역 짜장면 값(5400원) 역시 제주(5750원)를 빼고 가



장 높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은 외식비다.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

인 13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 직장인 점심값은 6110원으로 지난해(6230원)보다 1.96% 줄어 들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근처 식당(46.3%)이었고 구내 식당(28.8%), 편의점(10.7%), 도시락(9.6%)이 뒤를 따랐다. 편의점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는 답변은 지난해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점심 값은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식당에서 사먹는 점심값은 평균 7163원이었고 ▲편의점 5361원 ▲구내식당 5168원 ▲도시락 4774원 순이었다.

직장인이 즐겨 먹는 점심메뉴로는 백반(27.7%)이 1위를 차지했다. 김치찌개(26.1%), 돈까스(21.1%), 김밥(15.2%), 갈비탕(8.6%), 제육볶음(8.1%), 된장찌개(7.7%), 국수(6.7%) 등도 여전히 인기 메뉴 자리를 유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8.75 (-3.06) ↓ 금리(국고채 3년) 1.47 (-0.07)
↓ 코스닥 724.32 (-4.47) ↑ 환율(USD) 1182.60 (+2.20)



광주은행, 전남 소상공인지금 금리 인하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소상공인지금(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금리체계 개선 시행 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 소상공인지금의 금리상한 폭을 대폭 낮춤으로써 신용도와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었던 가산금리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고객 적용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1.4%이상 인하하도록 금리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지금 금리를 연 3.4% 이내로 적용하면 전남도의 이차보전(2.5%~3.0%)을 감안했을 때 실제 고객부담 금리는 연 0.4%~0.9%가 된다.

전남도 소상공인지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등 협약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 10억원의 특별출연을 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담보여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차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6만1000개 업체 대상

2019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호남통계청, 9월까지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차 '2019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전북·제주의 약 6만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며 2차 통합조사는 8월12일~9월27일 이어진다.

통합조사를 통해서 기업활동, 서비스업, 운수업,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는 프랜차이즈, 법인·기업구조, 소상공인실태조사가 추가된다.

조사항목은 업체 소재지·조직형태·사업의 종류·종사자 수 등 '기본항목'과 매출액·영업비용 등 '사업실적', 매장면적·객석수·직능별 종사자 수 등 '특성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차례로 공표된다.

이는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12일 장성공장에서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되는 임새주와 복분자주 수출 신장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임새주' '보해복분자주' 인도네시아 시장 첫 진출

1차 3만달러 상당 수출

7월까지 10만달러 선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 대표 제품인 '임새주'와 '보해복분자주'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보해양조는 12일 1차 물량이 출고된 후 오는 7월 중 2차 물량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임새주와 보해복분자주 1차 물량은 임새주 2만병 등 3만달러 상당이며, 다음달에는 2차 추가 물량이 수출돼 7월까지 10만달러 상당의 제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인 마트와 현지시장에서 판매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000만 명이 사는 인구대국이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는 중국인 화교 약 30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해는 자카르타 일대에 거주하는

화교들에게 보해복분자주 등 한국 주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출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보해는 임새주와 보해복분자주 이외에도 매취순과 순회에 대한 수출협의도 현지 업체와 진행 중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처음에 현지 업체가 요청한 물량은 12만달러 상당이었는데 이슬람교도들의 금육기간인 라마단 시기라 10만달러로 일부 줄었다"며 "정식 수출되기 이전에도 보해복분자주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매출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5월 취업자 광주 5000명 감소, 전남 3000명 증가

호남통계청 '고용 동향'

광주·전남지역 올해 5월 실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000명 늘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실업자 수는 광주 3만2000명, 전남 3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000명), 5.9%(2000명) 늘어난 수치다.

광주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한 4.0%, 전남은 0.1%포인트 상승한 3.0%였다.

광주지역의 경우 남자는 지난해보다 실업자 수가 10.4%(2000명) 감소했지만 여자 실업자는 1만4000명으로 3000명(21.4%) 증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건설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광주 취업자 수는 7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000명 감소했다. 특히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00명 ↓)과 건설업(9000명 ↓)의 취업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성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광주는 남자가 42만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000명 증가했으나, 여자는 32만4000명으로 9000명 감소했다. 광주지역 고용률은 59.2%로 전남(58.9%)보다 조금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달(59.7%)과 비교하면 0.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남 취업자는 97만6000명으로 3000명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2000명 ↓)과 농업·어업(1만1000명 ↓) 취업자가 크게 줄었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3만8000명(12.5%) 증가한 34만3000명을 기록해 감소 폭을 완화했다. 전남 고용률은 63.5%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기술 | 남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